2025.8.1.(금)	**현 지 정 보**	상해주재원

제목	**스테이블코인 관련 중국의 전략 및 평가**

□ 중국은 **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디지털 위안화(e-CNY)**를 **적극 보급**하는 한편 **홍콩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우회 발행**이라는 **Two-track 전략**을 **시행**

o **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**으로 그간 **가상자산에 대해 배타적**이었던 **중국 입장이 점차 변화**될 것으로 예상

▪ 한편 **e-CNY는 기술적 완성도**에도 **불구**하고 자본통제, 제도적 투명성 미흡 및 사용처 부족 등의 **제약**을 **여전히 내포**

[중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전략]

□ 최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*가 늘면서 중국은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디지털 위안화(e-CNY) 및 스테이블코인 보급이라는 Two-track 전략을 시행

* USDT와 USDC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위안화 통화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

○ 중국 본토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

○ 이는 오늘날 국제통화시스템이 '분절화', '다각화'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*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기인(중국사회과학원)

* 중국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(GENIUS 법안)를 미달러 영향력 강화 및 미국채 등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

□ 기본적으로 중국은 암호화폐 등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이며, 본토에서는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

○ 다만 중국의 통화주권 확보와 금융부문의 국가 통제력 유지를 위해 2019년부터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운영 및 보급

[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추진 현황]

□ 홍콩 입법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법안(Stablecoins Bill)을 5.21일 통과시키고 8.1일부터 공식 발효

○ 이미 지난해 3월 홍콩통화청(HKMA)은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참가 기관*을 선정하여 정식 발행 전 규제 및 기술요소 테스트를 진행

* Jingdong Coinlink, RD InnoTech, Standard Chartered Animoca HKT 연합 등이 참여

○ 8.1일 법안이 발효되면 일차적으로 소수(single digits) 기업에게만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

▪ 징동과 앤트그룹 등 일부 기업들은 라이선스를 발급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홍콩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(Reuters, 7.3일)

□ 홍콩통화청은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면서, 무분별한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높은 허가 기준과 사용자 보호 장치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

[디지털 위안화(e-CNY) 현황]

□ 중국은 2014년 디지털화폐 연구소를 설립하고 2019년부터 일부 지역*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했으며 2022년에는 e-CNY 지갑 앱을 대중에 정식 공개

* 디지털위안화 시범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28개 도시에서 시범운영

○ 2025년 상반기까지 등록된 e-CNY 지갑 수는 2.6억 개를 넘어섰으며 e-CNY를 통한 누적 거래액도 7.3조 위안에 육박

□ 한편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디지털 위안화를 다극화 통화체제 속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도 발표(판궁성 인민은행 총재, 25.6월 루지아주이 포럼)

○ 이를 위해 상하이에 국제 디지털 위안화 운영 센터 설립, 결제 인프라 혁신* 및 ASEAN 및 중동 국가와의 CBDC 협력 확대 등을 추진

* SWIFT 결제방식의 지정학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SWIFT 의존도를 줄이고, 자체 시스템인 CIPS(국경간 위안화 결제시스템)와 mBridge(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결제 플랫폼) 등의 개발을 통해 금융 주권 확보

[중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에 대한 평가]

□ 그간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히 금지해 왔으나,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으로 수용 가능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

○ 향후 우선적으로 역외 위안화(CNH)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홍콩에서 우회 발행하여 본토의 자본통제나 승인 없이 국제적 활용도를 시험할 가능성*

* 최근 징동은 인민은행과의 논의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우선 홍콩에서 역외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이후 중국 자유무역지대의 역외 시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(Reuters, 7.4일)

▪ 다만 일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적 기술은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단기간에 통화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(관타오, BOC 수석이코노미스트)

□ 한편 미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한 대응 및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위안화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

○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의 금융 디지털화 선도, 국경 간 무역 효율성 제고, 非달러 결제 대안 마련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인정

○ 다만 e-CNY의 기술적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자본통제, 제도적 투명성 미흡, 사용처 부족 등의 제약이 여전히 존재

○ 또한 중국내 e-CNY의 사용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알리페이나 위챗 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낮은 자발적 이용률* 등도 제약으로 작용

* e-CNY 시범지역에서 소비보조금을 받거나, 특정 상품 구매 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